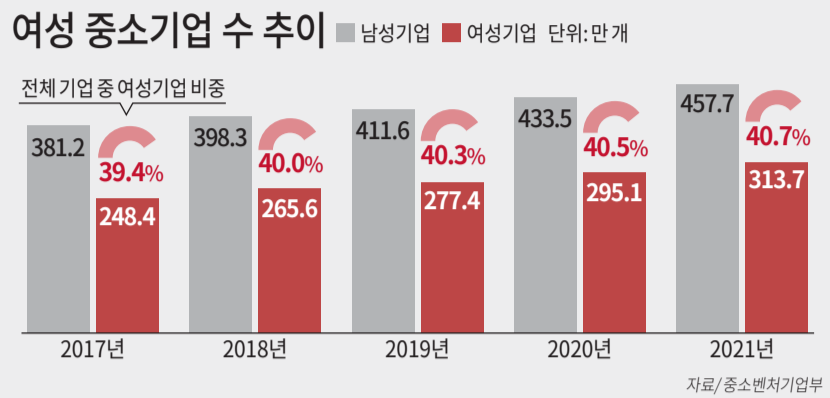


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777.68 (+6.99)	↑ 코스닥 813.53 (+10.38)
↓ 금리 (미국 9년) 2.976 (-0.028)	↓ 환율 (원-달러) 1366.55 (-9.95)

美 기준금리
8회 연속 동결
9월 인하 가능성 시사
04



m-커버스토리



97%가 소상공인 수출기업은 2%뿐

여성기업 300만 시대

女 기술창업, 男 보다 많지만
업력 3년 이하 40.2%로 다수
'7년 초과'는 32.9%에 그쳐

'10곳 중 4곳 업력 3년 이하, 소상공인 97.4%, 4곳 중 3곳은 1인 기업, 수출 경험 고작 1.9%...'

300만개가 훌쩍 넘는 대한민국 여성기업의 이면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여성 기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여성기업은 사업 초보 기업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내수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사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곳도 부지기수다. 이는 심각한 인구절벽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여성, 여성기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기업의 기술기반창업이 남성기업보다 많고, 여성기업이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미래 준비를 위한 정책 대 전환이 이젠 절실하다. 기존 지원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성과 측정도 따라야 한다. <관련기사 3면>

1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여성이 대표자인 여성기업은 2021년 기준으로 313만6543개로 집계됐다.

2016년 당시 238만 여가에 달했던 여성기업은 248만(2017년)→266만(2018년)→277만(2019년)→295만(2020년) 등으로 최근 5년 간(2016~2021년) 연평균 5.7%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남성이 사장인 남성기업 증가율(4.3%)보다 높다. 2016년 당시 약 370만개였던 남성기

업은 2021년 현재 458만여개로 여성기업보다 증가세가 더디다.

최근 5년간 종사자수도 여성기업은 약 432만명에서 528만명으로 연평균 4.1% 증가한 반면 남성기업은 1204만명에서 1321만명으로 1.9%는 늘지 않았다.

이처럼 여성기업이 양적으론 성장하고 있지만 내실은 그렇지 못하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약 314만개 여성기업 중 업력 3년 이하 초기기업은 40.2%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넘어선 기간으로 판단하는 '7년 초과'는 절반에도 한참 못미치는 32.9%에 그쳤다.

또 전체 여성기업의 97.4%가 소상공인으로 나타났다. 업종 역시 도소매업(27.6%), 부동산(21.8%), 숙박·음식점업(16.4%) 등 생계형 업종 비중이 65.8%로 많다. 1인 기업도 전체의 79.9%에 달하고 있다.

수출기업도 미미한 실정이다. 표본 24만597개 여성기업 중 수출기업은 1.9%인 4465개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성기업의 IT 등 기술기반창업 창업은 최근 7년간(2016~2022년) 연평균 5.6%로 같은 기간 남성기업(1.6%)보다 4%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한국의 여성기업은 눈부시게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이젠 질적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성공한 여성기업의 롤모델이 없는 것도 한 이유인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공한 여성기업인을 적극 발굴하고 알려 재능과 비전을 가진 여성들이 창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韓 펜싱 '3연패' 달성

구분길, 오상욱, 박상원, 도경동이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 헝가리와 경기에서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하자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K뷰티, 홍콩·대만行... 중화권 틈새공략

북미·日 등 국내뷰티 글로벌 확장
에이피알, 2분기 해외매출이 50%
홍콩 트렌트 맞춤형 시장공략 효과
비건 '달바'도 대만서 인지도 다져

국내 뷰티 기업들이 매출이 부진한 중국 본토를 떠나 홍콩과 대만 등 다른 중화권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북미와 일본 등으로 K뷰티의 글로벌 역량이 확장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실적 악화의 원인이 된 중화권 시장을 재공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는데 해외 성장 동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피알의 올해 2분기 매출은 15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다. 이 중 해외 사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770억원에 이른다. 에이피알은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미국 시장에서 활약했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에이피알은 올해 2분기 홍콩에서 전년 동기 대비 47.2% 늘어난 13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상반기 내 일본 대형 온라인 플랫폼 쿠팡에서 진행하는 메가와리 행사, 중국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 행사 618 쇼핑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 제품군. /에이피알

축제 등을 통해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기록한 매출을 넘어선 규모다. 같은 기간, 에이피알은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94억원, 100억원의 매출을 냈다.

이에 대해 에이피알은 홍콩 시장 트렌드에 맞춘 마케팅과 시장 선점 효과가 매출 성장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또 지난 3월 홍콩 몽콕에서 운영한 팝업 행사에서도 홍콩 시장 공략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 에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에이피알은 당시 홍콩 몽콕에 위치한 유명 쇼핑가 '모코몰'에서 자사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와 뷰티 디바이스를 선보였고 행사 기간 8일만에 1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현재 에이피알은 홍콩 단독 누적 뷰티 디바이스 판매 10만대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콩 시장에서는 에이피알의 이너뷰티 브랜드 '글

램다바이오'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 에이피알은 바로 분해 효소 등 브랜드 대표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는 최근 대만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바는 지난달 10일 대만 유명 인플루언서 '할로 마비스'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3시간 만에 비건 미스트 세럼 5만4000개를 완판했다. 할로 마비스가 달바 브랜드 본사를 방문하기 위해 직접 방한하는 등 브랜드에 대한 애정까지 표현해 대만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달바 측의 설명이다.

달바에 따르면, 할로 마비스는 라이브 방송,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대만 방송인으로 페이스북 팔로워를 57만명 이상 보유하고 있다. 달바는 할로 마비스와 꾸준히 협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할로 마비스는 앞서 지난 5월에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1분 만에 비건 미스트 세럼 5500병을 소진하고 당일 2만7000병을 판매했다.

이처럼 달바는 향후에도 대만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입지를 다양하게 다져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2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추경호, 야 '25만원 지원금법'에 "막사니즘 아닌 막사니즘" /사진 뉴시스
▲ 군 정선교재에 '독도=영토분쟁' 표현 삭제

▲ 통일부, 22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 정부, 혁신기업 '규제샌드박스' 심의 지연 없앤다... 부가조건 적정성도 검토



▲ 북한 압록강 유역 홍수 피해에... 중국 "수해 대응 공조 강화해야" /사진 뉴시스
▲ 악재에 기름 붓나... 충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갈등 논쟁

해외시장 정보부족 등 수출활동 애로 국가 차원 여성특화 지원 시스템 시급



여성기업 글로벌화 해법은

여성기업 무역통계 등 데이터 부실
수출지원제도 인지율 8.8% 그쳐
“신사업 개발·사전연구 이뤄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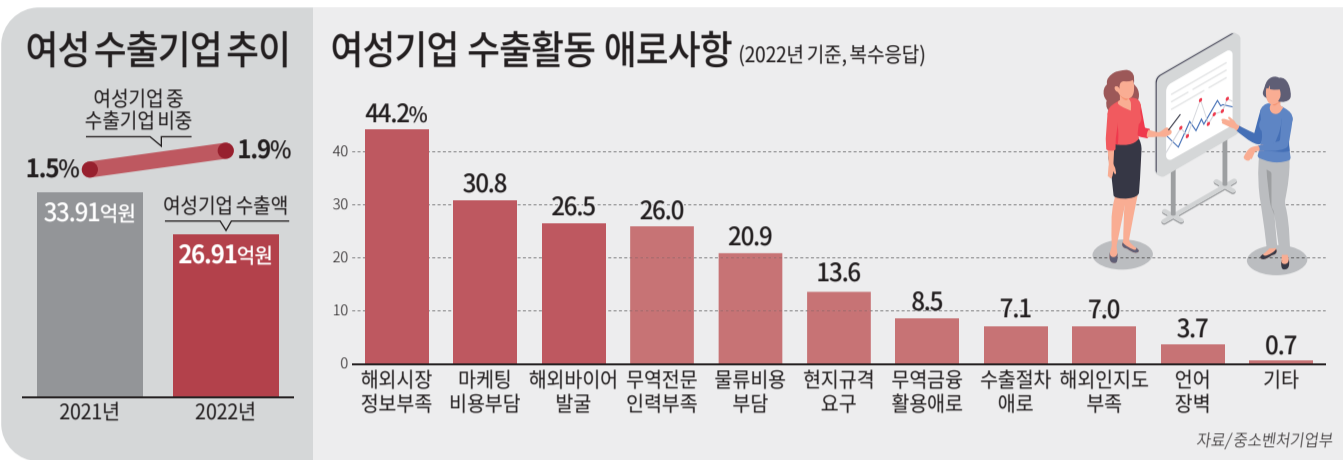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 김보례 선임연구위원은 “여성이 대표자인 여성기업들의 정확한 무역 통계가 없어 관세청 자료를 통해 여성기업만을 위한 수출 통계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식품, 화장품, 패션, 섬유 등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사업을 개발하는 동시에 글로벌 분야에서 여성 진출이 저조한 이유 등을 분석하는 사전 연구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발간한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4만597개 여성기업 중 수출기업(2022년 기준)은 1.9%인 446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39.6%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2023년 조사 자료를 보면 매출액의 25% 이상이 수출로 이뤄진 여성기업 비중은 한국이 2.5%로 49개국 중 37



위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 모로코, 우루과이, 태국 등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성기업 글로벌 평균은 8.3%다.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의 수출기업 비중은 전년도의 1.5%에서 소폭 늘었다. 다만 평균 수출액은 2021년 33억9100만원에서 2022년 26억9100만원으로 1년새 26% 감소했다. 중소기업 평균 수출액은 18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기업들은 수출활동의 주요 애로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 해외마케팅 비용 부담, 해외바이

어 발굴 어려움 등을 주로 꼽고 있다”면서 “특히 수출지원제도 인지율이 8.8%에 그칠 정도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

韓 여성경제활동 OECD 평균 이하 지속성장 위해 여성인재 활용 필수 “가사·양육 등 불평등 해소해야”

용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여성기업들의 글로벌화

를 돕기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진출 컨설팅 등 ‘1단계 사전 지원’, 그리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및 1대1 전략컨설팅, 법률지원 등 ‘2단계 진출 지원’, 해외 지사화 및 수출국 인허가, 인력 및 특허취득 지원 등 ‘수출기업 안정화 지원’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2단계 지원’과 ‘안정화 지원’ 사이에 중간 평가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미순 연구위원은 “인구절벽 시대, 지속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 선도국가

로 도약하기위해선 여성 인적자원 활용은 필수”라면서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위해선 직접적 지원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문제, 가사 및 양육의 남녀간 불평등 문화, 부족한 여성의 기업가정신 등 여성 경제활동을 막는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특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 최적화된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제품 현지화 ▲글로벌 고객 중심 접근 ▲해외 여성창업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글로벌 트렌드 파악 지원 ▲글로벌 진출 여성기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 ▲여성기업 이사회제도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국내외 체류 유학생·해외전문가 DB 구축·매칭 지원 등의 정책도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22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로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여성 기준 OECD 평균은 65.8%이지만 한국은 61.8%에 그치고 있다. 통계청 기준으로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54.6%)이 남성(63.9%)보다 눈에 띄게 낮다.

여성 창업, 여성의 사회 진출이 사회적으로도 대세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을 여전히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련 생태계도 부실한 실정이다.



지난 달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여성 경제인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시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성공한 롤모델, 여성경제의 미래를 바꾸는 힘



기고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가 위기 극복의 강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중, 여성의 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육성은 여성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

국내 여성기업은 314만개로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여성기업이 규모와 매출액이 작은 생계형 소기업으로 질적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과 동등해져 우수한 여성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있고, 제도적으로 남녀차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두드러진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그중 하나로 ‘성공한 롤모델 부재’를 꼽고 싶다.

성공한 여성 롤모델이 없는 것은 여성 창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멘토의 부재를 의미하며,

이는 여성들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마켓컬리 창업자 김슬아대표는 “여성들이 창업을 고민할 때 가장 큰 장벽은 사회적 편견과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라며 “성공한 여성 롤모델의 부재가 창업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성공한 롤모델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도전 정신을 고취시킨다. 이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반의 발전과 업계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25세 이상 여성 중 50% 이상이 미국 드라마 ‘X파일’ 속 여성 과학자이자 F

BI 수사관 스킨리 박사를 보고 꿈을 키웠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세리를 롤모델로 삼아 성장한 일명 ‘박세리 키즈’들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성장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의 여성기업계는 어떠한가. 당장 우리 머릿속에 롤모델로 삼을만한 성공한 여성기업인은 몇이나 있을까.

이제 국가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성공한 여성기업인을 발굴하고 홍보해 자신의 재능과 비전을 가진 실력 있는 여성들이 창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3년부터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

은 성공한 선배 여성 CEO들이 멘토로 참여해 여학생들이 미래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이다.

롤모델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선배 여성 CEO들이 현장에서 직접 터득한 노하우와 성공 스토리를 후배들에게 공유해 그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크게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공감대로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 덕분에 올해 사업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기도 했다.

가까운 미래에 성공한 여성기업인들이 많이 탄생해 후배 여성 기업가들에게 영감과 실질적인 이정표를 제공하고, 그들의 성공이 계속 이어져 여성기업의 질적 성장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美, 9월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韓, 가계부채·환율 '변수'

美연준,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FOMC, 금리 5.25~5.50% 유지
파월 “물가·고용시장 균형 관전”

韓, 美 인하 여부 따라 방향 전환
금융·외환 등 변수에 이달 동결
이 총재 “인하, 깜빡이 컨 상태”

“금리인하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다.”

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FOMC는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8회 연속 동결 결정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표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좀 더 지켜보고 데이터를 쌓은 뒤 (금리인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표 안정적에도 금리동결 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고용시장의 둔화가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은 2019년과 비슷해지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고용시장의 냉각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크게 증가했던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21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7월 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연준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다며 9월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5일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연설하고 있다.

5월 97만8000건 늘었던 신규일자리 고용은 올해 7월 12만2000건으로 줄었다.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치수던 임금 수준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020년 4월 전년대비 7.9% 상승에서 올해 6월 기준 3.9%로 낮아졌다.

파월 의장은 “신규 일자리 고용의 경우 2019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고, 임금상승률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정상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시장 냉각을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한 만큼 동결 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물가상승률도 목표치까지 충분히 둔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물가상승률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개인소비자지출(PCE) 물가지수

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6월 6.8%까지 올랐던 물가상승률은 올해 6월 2.5%로 낮아졌다. 다만 2019년 물가상승률 1%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파월 의장은 “2019년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물론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란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물가상승률 둔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美, 9월 금리인하 가능성

이날 파월 의장은 연준의 두가지 목표인 ‘물가안정’과 ‘최대고용’ 중에서 ‘최대고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대고용은 현실적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3%대에서 올해 5월부터 4%대로 올랐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고용시장이 둔화되면서 서서히 최대고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월 의장은 “예컨대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성장률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노동시장이 현재 조건으로 냉각된다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며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물가와 고용시장의 균형 등을 살펴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기대만큼 둔화하지 않더라도 경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목표치(2%)에 도달할 것이란 확신은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 외 고용지표 둔화에 따라 9월 금리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韓, 9월 이후 금리인하 논의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 언급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며 “금리 인하 ‘깜빡이’를 컨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앞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금융·외환 변수가 많아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9월 미국의 금리인하 여부를 확인한 뒤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8.5원 하락한 1368원에 개장했다. 연준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급격히 하락했지만 여전히 130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높은 환율은 수입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여 환율 변동폭을 더 키우진 않을 것이라 설명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문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25일 기준 557조4116억원이다. 6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5조26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회복기대감에 대출 수요가 늘며 가계대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지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의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가 가져올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합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AI 거품론 논란 속... IT업계 “AI로 인한 산업변혁, 이미 시작됐다”

골드만삭스, AI 효율성 의문 제기 업계, 업무 자동화·AI 활용 급증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활용 기대

기대에 못 미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두고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대두하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요동치고 있다. AI 거품론에 IT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이 요구하는 변화 속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AI로 인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 결과 AI 거품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도리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대두 중인 미국발(發) IT·반도체 기업들의 AI 거품론은 지난달 투자



31일(현지시간) 미국 덴버에서 열린 그래픽 컨퍼런스 시그나프에 참석한 제논 황 엔비디아 CEO가 “생성형 AI가 인간의 생산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1인 1AI 에이전트의 시대를 선언했다. /엔비디아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AI 관련 보고서와 MS의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에서 비롯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다른 아세모글루 MIT 교수의 의견을 소개하며 회의론을 펼쳤다. 아세모글루 교수는 “AI에 노출된 작업의 단 4분의 1만이 향후 10년 내 효율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AI가 전체 작업의 5% 미만만 영향을 미칠 것이며 AI 기술은 시간이 지나도 개발 비용이 감소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지난 2분기 실적은 AI 거품론에 불을 붙였다. MS는 지난 2분기(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647억달러(약 89조 원), 순이익은 220억달러(약 30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해 지난해 보다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15%, 순이익은 10% 늘었다고 알렸다. 그러나 AI 운영의 핵

심 부분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 사업 매출 성장률이 29%에 그쳤고 AI 서비스 성장률은 8%p로 나타나 큰 성장을 거두지 못했다.

AI 거품론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낙관적인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가시적인 영역 밖인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스마트팩토리, 업무에서의 AI 활용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탓에 관련 IT 기업들의 기업 솔루션 개발에서 AI는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됐다.

앞서 ‘텔 테크놀로지스 월드’에 참석한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 서비스의 도입과 LLM(거대언어모델)을 활용

한 기업 업무자동화에 관심을 보인다”며 “앞으로 모든 컴퓨팅 기술은 언어 인터페이스를 가진 애플리케이션과 솔루션을 쉽게 업로드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GPU 중심 컴퓨팅 시대(GPU-Centric Computing)가 올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자사가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인 패브릭스(FabriX)와 브리티 코파일럿(Brity Copilot)을 소개한 바 있다.

산업계 및 업무 영역 외 개인의 삶에서 AI의 역할 또한 커진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IoT 기술 및 개인 모바일 기기와 AI의 결합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서현 기자 seoh@

공정위, 생성형 AI 시장 독점 예방 실태조사 착수

AI시장 경쟁제한 정책 파악 연말 ‘AI 정책보고서’ 발간

정부가 AI(인공지능) 시장 거래관계와 경쟁 현황 파악에 나섰다. AI 기술 특성상 소수 거대 기업의 시장 잠식 가능성이 큰 만큼 AI 시장의 경쟁제한 여부를 들여다 본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AI 분야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챗지피티(Chat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AI 시장은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생성형 AI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전세계 GD

P가 7%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 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경쟁당국과 국제기구도 AI 시

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캐나다 경쟁당국은 지난해 AI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고, EU(유럽연합) 집행위는 올해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

적으로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와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파운데이션 모델, 컴퓨팅 하드웨어 등)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개를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에게는 곧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野 '민생회복지원금법'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 돌입

與, 13兆 예산 필요... 재정건전 해쳐 "소비진작 효과는 3~4兆 뿐 한 달정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

野,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신청 종결 후 노란봉투법도 처리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자, 여당이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실시되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건전 기초를 해칠 수 있고, '처분적 법률'(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 국민이 원치 않는 법안을 왜 도돌이표처럼 올리나"라고 지적했다.

배 수석은 "오늘 상정된 불법현금살포법은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지

난 5월24일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이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권을 지급하면 한 달 동안 소비는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물가를 자극해서 올려서 결국 지급을 단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 "나라가 빚을 내 상품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민간 이자율을 끌어올리고 이 때문에 소비가 더욱 더 줄게 된다"며 "조삼모사에 도둑 미치는 민생소비위축법안"이라고

표현했다.

배 수석은 이날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용자 범위를 마구 넓혀서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는 초법적인 법안"이라며 "불법행위를 무죄로 만들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적인 법이자 무차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파업을 해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파업에 동참하며 그 피해가 모든 임직원에 나아가 가족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대법관 노경필·박영재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진보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겠다"며 "그러나 보수의 걱정, 대안, 분석도 받아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은 25만원의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전체

지급액의 20~30%만이 소비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25만원은 13조원 혹은 17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략 3~4조원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당연히 한 달 정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소비자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그 소비는 이미 회복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신청하고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를 종결, 노란봉투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를 밟았다.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어, 이르면 내일(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사각지대 해소안에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하나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권영진 "큰 틀서 합의보고 소위 진행" 피해자에 민간주택 공급 방안 제시 野, '선 구제 후 회수' 합의점 찾을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오늘 늘은 쟁점 사항까지 논의하지 못했다"며 "소소위는 아니지만 별도의 팀을 만들어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다음 소위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으로 각각 '경매 차익 지급'과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위 소위에서 각자 내놓은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진 못했으나 민주당은 "경매를 통한 차익 지원이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꼭 담겨야 한다"며 협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의 방안에는 일부 공감하나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를 우려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번엔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전세사기 방안이 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여야

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는 "야당 의원들은 경매 차익 지급방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 주택을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우려하던 사각지대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틀에서 다음 논의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가능하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정부안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절박한 상황이어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정부안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 안에서 정부안보다 좋은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정점식 "당 분열 막기 위해 정책위의장직서 사임"

정점식 침묵 길어지자 압박 거세져 韓 "민심따라 당 변화 모습 보여줘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임면권을 가진 정무직 당직자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한 끝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결국 사퇴를 선언했다.

한 대표 측 입장에선 친윤(친윤석열)계인 정 정책위의장을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 교체하면 최고위원회의 구성을 친한계 5명, 친윤계 4명으로 만들어 유리한 지도부 구성이 가능하다.

정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선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서지영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조직부총장, 김수민 홍보본부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날(7월31일) 국민의힘에 사퇴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 정책위의

장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와 정 의장 사이 따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정책위의장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기자들에게 '밤중에(사퇴를) 고민하셨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고민할 것이 있나"라고 답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당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정책위의장의 침묵이 길어진 만큼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의 사퇴 압박도 거세졌다.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인선과 관련해 힘을 실어줬다고 보는지에 대해 "주요 당직자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서 "특히 서범수 사무총장, 정점식 의장은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

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정 의장의 사퇴 시한에 대해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도 시기를 정하는데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선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범수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질질 끌고 갈 수는 없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결국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긴 침묵을 깨고 사퇴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음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한동훈 대표를 지나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을 갑자기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서범수 사무총장의 사퇴 요구) 이후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를 많이 했다. 당 분열을 막기 위해 사퇴하는 게 맞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원내기구,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위가 설치돼 있다. 당 기구가 아니라 원내기구인 것"이라며 "당헌상 임기가 규정돼 있

는 보직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내게 보직이 유일하고,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책위원회는 당 대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논의해 결정했고, 그러다보니 시일이 걸렸다는 것이 정 정책위의장의 주장이다.

/서예진 기자 syj@

첫 걸음의 설렘,
함께 해 온 여정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내일의 힘이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나아지도록



QR코드를 찍고
내일의 에너지를
확인해보세요



SKT, 韓 펜싱 '산실' 역할... 20년간 누적 지원금만 300억

펜싱 경기력 향상·저변확대 지원 해외 전지 훈련·국제대회 '집중' 올림픽 위해 모의훈련, 전담팀 등 펜싱협회와 체계적 지원책 실행



한국 펜싱 대표팀 선수들이 지난 6월 29일 'Team SK' 출정식에 참석해 결의를 다지는 모습. 왼쪽부터 구본길 선수, 송세라 선수, 오상욱 선수, 오경식 SKT 스포츠마케팅 담당(부사장). /SKT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3연패에 성공했다. 한국 펜싱이 세계 최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엔 SK텔레콤의 꾸준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펜싱은 1일 열린 남자 사브르 단체전(구본길·오상욱·박상원·도경동)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3연패(2012 런던·2020 도쿄·2024 파리, 2016 리우 대회는 종목 로테이션으로 제외)의 위업을 달성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사상 첫 펜싱 종목 단체전 3연패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선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상욱 선수는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 금을 휩쓸며, 한국 펜싱 선수로는 첫 올림픽 2관왕에 올랐다. 이와 더불어 여자 사브르 개인전 4위(최세

빈), 여자 에페 단체전 5위에 오르는 등 한국 펜싱은 '펜싱 종주국'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선전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한국 펜싱이 세계 최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엔 SK텔레콤의 꾸준한 후원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텔레콤은 2003년 대한펜싱협회 회장사를 맡은 뒤, 20년 넘게 펜싱 종목의 경기력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

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이 대한펜싱협회 등을 통해 지원한 누적 금액만 약 300억원에 이른다.

회사는 그간 국가대표 선수들의 해외 전지 훈련 및 국제 대회 지원 등에 집중해 왔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서 19회째 열린 'SK텔레콤 국제 그랑프리 펜싱' 대회는 한국 펜싱의 '산실(産室)'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펜싱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종목이다. 이와 관련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 윤지수 선수는 "선수들이 쓰는 장비나 시설 비용을 SK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 친구들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펜싱협회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위해 세 단계에 걸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해 실행했다.

먼저 파리 올림픽 사전 모의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진천선수촌에 올림픽 경기장과 같은 규모의 피스트(piste·경기대)를 만드는 것은 물론, 관중 함성과 경기장 조명까지 동일한 조건을 맞춰 훈련하도록 했다. 선수들은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올림픽 분위기를 간접 체험하며 적응력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파리 현지에서 훈련 파트너 선수단 7명 등 별도 전담팀을 파견하고, 전력분석관을 증원하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의무 트레이너 2명과 파

견해 24시간 내내 선수들의 컨디션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파리 상젤리제 인근 한식당에서 매일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 선수들이 친숙한 한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왔다.

SK텔레콤과 펜싱협회는 이 같은 현지 지원 활동을 위해, 올해 초 올림픽 펜싱 경기장 인근 호텔을 선점했다. 해당 공간은 선수들의 휴식 등에도 쓰이며 사실상 한국 펜싱 대표팀의 '베이스캠프'로 활용되고 있다.

대한펜싱협회장을 맡고 있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이번 파리 올림픽 펜싱 경기 내내 현장을 방문해 한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최 회장은 2018년 펜싱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펜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

한편 대회 직전 열린 '팀 SK' 출정식에서 오상욱 선수는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주요 대회에 격정없이 참가할 수 있게 해준 SK텔레콤에 늘 고마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업계 최고용량' 1TB 마이크로SD 카드 출시

삼성전자, 프로·에보 플러스 2종 게임 콘솔, 드론 등 모든 기기 호환 전력 효율 개선해 배터리 소모량 ↓



삼성전자 'PRO Plus'와 'EVO Plus' 1TB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고용량 1테라바이트(TB) 마이크로SD 카드 2종 '프로 플러스(PRO Plus)'와 '에보 플러스(EVO Plus)'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업계 최고 용량인 1테라바이트(Tb) TLC(Triple Level Cell) 8세대 V낸드를 8단으로 쌓아 패키징해 테라바이트급 고용량을 구현하고, 제품 내 구성을 강화했다.

TLC는 하나의 셀에 3비트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다.

삼성전자가 2015년 첫 출시한 프로 플러스와 에보 플러스 라인업은 ▲용량 ▲속도 ▲안정성 ▲호환성을 모두 갖춘 마이크로SD 카드다. 고성능·고용량을

각 초당 최대 180메가바이트(MB), 160MB의 연속 읽기 속도를 제공한다.

1TB 용량은 2.3MB 4K UHD 해상도 이미지 40만 장 또는 20GB 콘솔 게임 45편 이상을 저장할 수 있다.

'PRO Plus'와 'EVO Plus' 1TB 제품은 28나노 컨트롤러를 통해 전력 효율을 개선해 배터리 소모량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프로 플러스와 에보 플러스의 1TB 제품은 UHS 스피드 클래스 3(U3), 비디오 스피드 클래스 30(V30), A2 등급을 갖춰 빠른 데이터 로딩과 멀티태스킹 작업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방수, 내열, 엑스레이, 자 가장, 낙하, 마모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극한의 외부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이다.

▲게임 콘솔 ▲드론 ▲액션 카메라 ▲태블릿 등 마이크로SD 카드 슬롯이 있는 모든 기기들과 호환 가능해 크리에이터, 게이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두 제품 모두 최대 용량이 512GB(기가바이트)에서 1TB로 2배 증가했다. 두 제품은 각

LG전자 '사이니지', 변색 저항 검증 획득

황변현상 최소화... 업계 최초 검증

LG전자가 고휘도 사이니지가 세계 최초로 글로벌 시험기관으로부터 화면의 변색을 최소화하는 특성 관련 검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UL 솔루션즈'로부터 LG 사이니지가 황변현상에 강한 특성이 있음을 검증 받았다고 설명했다.

UL은 신뢰성 판정 기준에 따라 전기·전자 제품을 평가한다. 글로벌 제조업체 가운데 디스플레이 변색 저항에 대한 검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황변현상 최소화를 위한 기술 개발은 물론 전자 업계 최초로 테스트 방법과 변색 판정 기준까지 제시했다.

황변현상은 디스플레이 화면이 노랗게 변색되는 현상이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야외 메뉴판과 입간판, 버스 광고판, 경기장, 학교 등에 활용된 고휘도 사이니지가 장시간 태양에 노출됐을 때 자주 발생한다.

LG전자는 다양한 실외 환경에서 높은 시인성을 위해 고휘도 사이니지 활용을 원하는 B2B(기업간거래) 고객들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황변현상으로 잦은 제품 교체, 서비스 중단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LG전자는 사이니지 방열 기술을 개선하고 태양 빛에 강한 소재를 적용하는 등 연구·개발을 통해 변색을 최소화하는 '안티 디스컬러레이션'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변색에 강한 디스플레이를 판정하는 명확한 테스트 기준이 없어 사이니지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웠다. LG전자는 객관적·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화학연구원과 협업했다.

LG전자는 안티 디스컬러레이션 기술을 옥외용 고휘도 사이니지 신제품에 적용하는 한편, 적용 제품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경제계 "노란봉투법, 기업·경제 무너뜨리는 악법"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

경제계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결의 대회를 1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며 야당을 규탄하고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정의행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정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재추진함에 따라 경

제단체는 입법 저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성명에 앞서 지난 7월25일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 7월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경제6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에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대한항공, 일반석 라면 서비스 중단

2019년비 난기류 발생 2배 늘어 샌드위치·피자 등 새로운 간식 선택

대한항공이 난기류 때문에 라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이달 15일부터 장거리 노선 기내 간식 서비스를 재단장한다고 1일 밝혔다.

장거리 노선에서 제공했던 일반석 라면 서비스는 중단한다. 하지만 라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채로운 간식이 제공된다.

난기류 발생 수치가 2019년 대비

2024년에 두 배 늘어나면서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 간식 서비스에서 라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라면 서비스의 경우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승무원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한꺼번에 옮겨야 하고,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어 화상의 위험이 컸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 일반석의 라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샌드위치 ▲콘덕 ▲피자 ▲핫포켓 등의 기내 간식을 새로이 선보일 계획이다. /박대성 기자

“클릭해 보니 가격 다르네”... 여행플랫폼 ‘다크패턴’ 주의보

위장 광고·반복간섭 등 폐해
법적 제재근거 부족... 피해 확산
“플랫폼 스스로 안전환경 구축해야”

#1. 7월 초, 휴가를 맞아 가족과 3박 4일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A(27)씨. 항공권을 예약하기 위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비교해 예매하는 한 플랫폼에서 적당한 항공권을 찾았다. 결제를 위해 창을 넘기자, 기존에 보지 못했던 부가서비스가 추가돼 가격이 약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했다.

#2. 디즈니랜드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를 비교하던 B(34)씨.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한 사이트를 발견하고 구매를 위해 결제 페이지로 넘어갔다. 최종 결제 금액이 예상했던 금액과 달라 살펴보니 성인이 아닌 어린이 기준으로 요금이 표기된 것을 발견했다.



여행플랫폼 ‘다크패턴’ 관련한 Chat GPT 생성 이미지

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여행 성수기를 맞아 온라인 여행플랫폼(Online Travel Agency·OTA)에서의 ‘다크패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웹·앱의 인터페이스(UI)를 뜻하는 단어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은폐·축소·누락하는 온라인 상술을 일컫는다.

최근 OTA 규모가 커지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관광산업 유통채널에

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6%에서 2025년 7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OTA 시장 규모는 2017년 16조 3970억 원에서 2022년 19조 1350억 원으로 연평균 3.1% 성장했으며, 현재는 약 20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크게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19가지 세부 유형으로 명시했다. 이는 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업체가 자발적으로 개선하라는 취지에서다.

OTA에서 소비자가 흔히 겪을 수 있

는 다크패턴으로는 ▲순차 공개 가격책정 ▲위장 광고 ▲숨겨진 정보 ▲반복 간섭 등이 있다. 특히 A 씨의 사례에 해당하는 순차 공개 가격책정은 검색 화면의 가격과 최종 결제 금액이 다르거나 상품을 비교하는 도중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세금·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확인된 가격으로 착각해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공개한 OTA 상위 5개 업체의 판매가격 표시 현황에 따르면, 이들 중 4개 업체가 숙박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거나, 추가 요금 또는 최종 결제 금액을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립닷컴은 작은 글씨로 주의 문구를 적고 최종 결제 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으나, 가격 그래프에 표시된 최저가와 실제 검색한 항공권의 가격이 약 5~7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의 사례처럼, 일부 여행 플랫폼에서 해외 유명 테마파크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다크패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여행 플랫폼 6곳에서 판매하는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해외 테마파크 7곳의 입장권 거래 상품(44개)을 조사한 결과, 3개 플랫폼(마이리얼트립, 인터파크투어, 트리플)에서 16개 상품에서 다크패턴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상품 검색 화면에 노출되는 입장권 대표 가격을 성인보다 저렴한 아동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입장권이 아닌 식사 쿠폰 가격으로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3개 업체가 개선 권고를 수용해 입장권 대표 가격을 성인 기준으로 표시하는 등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약이 자동 갱신·결제되는 ‘숨은 갱신’, 구매·회원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방해 절차가 복잡하게 만드는 ‘취소·탈퇴 방해’ 등이 다크패턴으로 나타난다.

온라인 상술에 대한 입법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 1월 다크패턴을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숨은 갱신 ▲순차 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다양한 다크패턴을 제재하기엔 전자상거래법의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해 다양한 다크패턴을 제재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입법 공백을 메워 피해를 줄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에 불과해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신뢰하는 앱인 만큼 규제 여부를 떠나 플랫폼 스스로 소비자가 직관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FMS 2024’ 참가

HBM3E 12단 등 AI 메모리 기술·비전 제시

321단 낸드 샘플 등 전시
김주선 사장 “1등 경쟁력 각인”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행사에서 3분기 양산 계획인 HBM3E 12단, 내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인 321단 낸드 샘플 등 차세대 AI 메모리를 선보인다.

SK하이닉스가 오는 6~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Santa Clara)에서 열리는 ‘FMS 2024’에 참가해 최신 AI 메모리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이 분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SK하이닉스는 “FMS 영역 확대에 발맞춰 올해는 제품 전시뿐 아니라 기조연설을 통한 회사 비전 발표 등 많은

준비를 했다”며 “AI 메모리 솔루션 미래를 선도하는 당사 경쟁력을 업계 전반에 알리는 기회로 이번 행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지난해 FMS에서 세계 최고층 321단 낸드를 최초로 공개하는 등 이 행사를 통한 글로벌 소통에 공을 들여왔다.

6일에는 SK하이닉스 권원오 부사장(HBM PI 담당)과 김천성 부사장(WW SSD PMO)이 ‘AI 시대, 메모리와 스토리지 솔루션 리더십과 비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AI 구현에 최적화한 SK하이닉스의 D램, 낸드 제품 포트폴리오와 AI 메모리 솔루션을 소개하며, 권 부사장이 D램, 김 부사장은 낸드 분야 발표를 맡는다.

회사는 발표 주제에 맞춰 이번 행사에서 3분기 양산 계획인 HBM3E 12단, 내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인 321단 낸드 샘플 등 차세대 AI 메모리 제품들을 선보인다.

SK하이닉스는 자사 주력 제품들이 탑재된 고객의 시스템 제품도 함께 전시, 빅테크 고객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도 강조할 계획이다.

회사는 또, 메모리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 리더들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FMS 슈퍼우먼 컨퍼런스(Super Women Conference)’에 올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기로 했다. 7일 오후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회사의 최초 여성 연구위원인 오해순 부사장(Adva



321단 1Tb TLC 낸드, 이전 세대인 238단 512Gb 대비 59% 생산성이 향상됐다. /SK하이닉스

nced PI 담당)이 ‘SK하이닉스의 미래 기술 혁신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SK하이닉스 김주선 사장(AI Infra 담당)은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D램, 낸드 단품보다는 여러 제품을 결합해 성능을 높인 메모리 솔루션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 FMS를 통해 이 분야를 선도하는 당사의 1등 경쟁력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각인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KT 장기고객 혜택 강화

KT가 장기고객을 위한 고객 혜택을 확대한다.

KT는 유무선 장기가입자를 위한 새로운 혜택 ‘장기고객 감사드림’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장기 고객 대상 여부는 KT닷컴과 마이케이티 앱(APP)의 ‘마이쿠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고객 감사드림’은 ▲총 14종의 장기 고객 혜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쿠폰 ‘쿠폰드림’과 ▲월 1회 KT 문화 행사에 초청하는 ‘초대드림’으로 구성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T 8월 여행 할인혜택 확대

SK텔레콤은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와 일본 여행 관련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SKT는 태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T멤버십을 통해 ‘글로벌여행’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지 맛집, 쇼핑 등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SKT는 휴가철인 8월, 추석연휴가 겨 있는 9월을 맞아 T멤버십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내달 30일까지 2개월 간 진행된다. /구남영 기자

중진공, 뿌리산업 영위기업 현장 점검

강석진 이사장 미주정밀 방문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다각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뿌리산업 관련 기업 발굴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강석진 이사장이 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금형 전문기업 미주정밀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우리 산업의 근간인 지역 내 뿌리산업 영위기업 현장을 찾아 중소기업인의 현장 애로에 공감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뿌리산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1990년에 설립한 미주정밀은 34년간 정밀 금형분야를 선도하는 뿌리산업 기업이다. 특히, ‘압축 확산 사출 성형 금형 및 이를 이용한 박형 제품 성형방법’ 등 총 24건의 특허기반 기술력과 선진화된 생산 시스템을 갖췄다.

올해는 중진공 뉴델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입주해 현지화를 통한

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도시장 공략에 나선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창업부터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 지원까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정책자금, 글로벌 신시장 진출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 뿌리산업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다각화함은 물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코스닥, 거래대금 5~6조 '최저치' 전기차 수요·2차전지株 부진 영향

밸류업 정책 효과 미미, 코스닥 소외 전기차 수요 부진 등 코스닥 지수 ↓ "활성화 위해 부실기업 퇴출" 목소리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코스닥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이 밸류업 정책의 수혜를 얻지 못한 데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시총 상위인 2차전지주들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5조~6조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날 코스닥 일일 거래대금은 6조7212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지난달 26일(5조6332억원)과 29일(5조3692억원)에 5조원대로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0조원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크게 떨어진 셈이다.

코스닥 지수가 부진하면서 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900대선까지 올라갔던 지수는 이후 하락 전환, 지난달 말 800선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차전지주의 하락이 크게 작용했다. 코

스닥 대장주로 꼽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연초 대비 각각 86%, 36% 가량 떨어졌다.

또한 지난달 코스닥의 회전율도 1.51%로 전달(1.59%) 대비 감소했다. 회전율은 일정 기간의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손바뀜이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주가는 미래에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장 크게 미치는 요소가 되는데 코스닥 시장은 향후 시장을 주도할 만한 기업들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은 밸류업 혜택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10개사 가운데 코스닥 기업은 에프앤가이드, 콜마비앤에이치, HK이노엔 등 3개사에 불과하다. 밸류업 정책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주환원 여력이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코스닥 기업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코스닥이 정체된 흐름을 보이자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

해 부실기업을 제때 퇴출시켜 코스닥 시장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거래소도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좀비기업의 퇴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데다 코스닥시장 본부장(상임이사)에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경욱 상무를 내정했다. 앞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코스닥 상장사들을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거래소는 향후 코스닥 기업들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의 노력만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기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가 나름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첫번째 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첫번째 줄 왼쪽에서 여덟번째), 조병규 우리은행장(첫번째 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임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디지털·IB 강한 종합증권사로"

10년 만에 공식 출범 선포 은행·증권 시너지협의회 운영

우리투자증권이 10년 만에 증권업 재진출을 선포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우리투자증권은 1일 여의도 소재 TP타워에서 출범식을 갖고 우리금융그룹 계열 증권사로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투자증권은 '디지털과 IB가 강한 종합증권사'를 표방하며 궁극적으로 '초대형IB'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를 비롯해 지주사 임원 및 그룹사 사장단, 우리투자증권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 대표는 "우리투자증권 임직원 모두 '원팀'이라고 강조하며 회사가 나아갈 첫 번째 지향점으로 '디지털과 IB가 강한 종합증권사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기존 포스증권의 플랫폼 경쟁력과 우리종합금융의 발행어

음 및 기업여신 비즈니스를 초기 사업 발판으로 삼아 IB, S&T(세일즈·트레이딩), 리테일 등 각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IB와 증권IB을 아우르는 그룹CIB체계 구축과 기업 생애주기에 맞춘 종합금융 서비스에 집중해 전 그룹 핵심전략인 '기업금융명가 재건'을 추동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 첫 단추로 은행·증권 간 시너지협의회 운영과 함께 2조원 규모의 계열사 공동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우리투자증권을 향한 우리금융그룹의 전폭적인 지원도 따를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임 회장은 "우리투자증권의 인사·조직·성과보상 등을 그룹 계열사 잣대가 아닌 시장 관점, 증권업준기준에서 다룰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임 회장은 "자본력 확충, 인재육성 시스템, 독자사옥 확보 등 우리투자증권의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높여 자본시장 플레이어로 빠르게 성장하겠다는 게 그룹의 목표"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WTS 재도입... 표절논란·차별조치 우려

KB증권, 토스증권 유사성 문제 제기 21일 첫 심문기일... 양사 갈등 고조 저작권·디자인 보호 등 쟁점 부각

증권가 내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서비스 재도입이 본격화되면서 표절 논란, 차별 조치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KB증권이 WTS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토스·신한투자·미래에셋증권 등도 이를 뒤따르고 있지만 지연되는 모습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이 토스증권을 상대로 접수한 부정 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1일로 예정됐다. 앞서 KB증권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토스증권이 최근 정식 출시한 WTS가 자사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KB증권의 WTS

'마블(M-able) 와이드'는 6월 접속 고객 44만명을 돌파하는 등 WTS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후 토스증권도 지난 5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WTS '토스증권 PC'를 선공개했고, UI(유저 인터페이스)·UX(유저 익스피리언스) 등 화면 구성 요소나 구현 방식이 비슷하다며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절차를 성실히 밟으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WTS의 '표절 논란'인 만큼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특허·디자인 측면에서는 창작물로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 측면에서의 구체적 쟁점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오 법무법인바른 변호사는 "창작물로의 보호는 받기 어려워 보이지만

적용 범위 넓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투 볼 여지는 있다"며 "WTS의 구성 부분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힘들고, UI·UX 등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자체는 등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지만 디자인이나 구현적인 측면에서 특이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앞으로 양사가 제출할 증거물이 관건으로 보여진다.

WTS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플랫폼이지만 모바일 수요가 증가하면서 활용도가 낮아졌었다. 이에 다수의 증권사들이 기존 WTS 서비스를 종료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WTS의 접근성·편의성이 재평가되면서 증권사들도 재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설치 과정이 생략된다는 점과 다양한 정보를 큰 화면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두드러진 것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증권, 김앤장과 '인생 신탁' 연계 업무협약 KB증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종합재산신탁서비스인 'KB 인생 신탁'과 관련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KB 인생 신탁'을 통해 다양한 법률·세무 이슈를 상시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신탁업 혁신방안 개정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왼쪽부터)KB증권 전장현 고객자산전략부장, 김민수 고객자산운용센터장, 윤만철 고객솔루션총괄본부장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허영만 변호사, 이학진 변호사, 은정민 변호사가 업무협약식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한투증권 홍콩법인, 필리핀 부동산개발사 채권 발행 주관

지난달 말 달러채 발행 성공적 마무리 만기 5년·발행금리 달러 기준 9% 수준

한국투자증권은 홍콩법인 'KIS Asia'를 통해 필리핀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스타랜드(Vista Land & Lifescapes Inc.)'의 5000만달러(약 690억원)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을 주관했다. 국내 증권사가 필리핀 현지 기업의 글로벌본드 발행을 주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달러채(Reg S)발행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KIS Asia와 글로벌 투자은행 HSBC,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했으며 채권 만기는 약 5년, 발행금리는 달러 기준 9.375%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2일 비스타랜드의 3억달러 규모 달러채도 주관 발

행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당시 발행액의 두 배가 넘는 주문이 몰리며 크게 흥행하면서 이번 증액 발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존 발행 물량까지 총 3억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월 '몽골 국책 주택금융기관(Mongolian Mortgage Corporation)'의 달러채도 발행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키움증권, 7월 해외주식 약정금액 25.8조

월 약정금액 역대 최고치 경신

키움증권은 올해 7월 해외주식 약정금액이 2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 3월의 18조4000억원이다. 약정금액은 해외주식을 매수 및 매도한 금액의 합산이다.

키움증권 계좌로 해외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은 디렉시온 테일리 세미콘더터 볼 3배 ETF(SOXL)다. 이어 테슬라(TSLA),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ETF(NVDL)가 뒤를 이었다. 20대 투자자가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은 반도체 레버리지 3배(SOXL)였으며, 2위는 테슬라 2배 레버리지(TSL), 3위는 테슬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보유잔고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엔비디아, 나스닥 3배 ETF(TQQQ) 순이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미국주식 투자하는 수요는 20대를 비롯해 전 세대에 걸쳐 증가하는 추세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거래대금 3년 연속 1위 증권사에서 차별화된 주문 톨과 안정적인 인프라로 트레이딩, 배당투자, 자동주문 등 모든 형태의 투자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로컬 관광 트렌드 맞춰 민·관 ‘농촌 관광·문화 활성화’ 박차

농식품·문체부 장관, 협업 의지 다져
충남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 방문
유기농업 테마 체험프로그램 체험
신세계, ‘지역 특산품 발굴’ 통해
고급 레스토랑·전국 백화점 판매

두 관계부처가 힘을 한데 모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일 농촌 관광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 등의 목표가 맞닿아 있다는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송 장관과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을 찾아, 농촌 관광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의지를 다졌다.

문당환경농업마을은 국내 최초로 오리농법을 도입했다. 농촌 ‘크리에이티브’(Creatour) 브랜드 ‘따르릉 홍성 유기농길’ 등 유기농업을 테마로 한 다양



충남 홍성에 위치한 문당환경농업마을 내 전시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또 문체부가 지정한 ‘로컬100’ 중 하나이자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거점 공간이다. 문체부는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를 선정해 ‘로컬100’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마을에 위치한 ‘달마당 스테이’는 문체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사업의 주요 성과로 작년 한 해 900여명의 체류형 관광객이

방문했다. 충남도청소재지 내포신도시가 자리해 있는 홍성군은 광천길, 남당항 대하 등이 유명하다.

송 장관과 유 장관은 문당환경농업마을의 시설 전반을 살펴본 뒤, 홍성의 식재료와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 중인 지역 창업자들과 함께 ‘유기농 쌀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 직접 만든 피자과 홍성의 곡물 특산품을 활용해 다양한 맥주를 상

품화한 ‘이히브루’의 제품을 맛보고 지역 창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두 장관은 특산물에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더해 문화레시피로 재탄생한 지역 생산품과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촌융복합 인증 제품들의 팝업 부스도 둘러봤다.

송 장관은 “농촌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농업 외에도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숨은 여행지 발견, 틀을 벗어난 특색있는 여행, 즉흥 여행 등이 부각되고, 독창성 있는 로컬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문체부와도 협력을 강화해 농촌지역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과 농촌이 만나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우리 농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유 장관은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유의 문화와 특화된 관광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지역을 사랑하고,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통 대기업도 이날 행보에 합류했다. 신세계는 ‘로컬100’,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대상지와 ‘농촌협약’ 대상지를 필드트립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식재료와 식문화를 전파하는데 효과적인 ‘로컬이 신세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문체부와 머리를 맞댄다. ‘로컬이 신세계’란 지역 필드트립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발굴한 뒤, 셰프(주방장)와 연계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제공해 특산품의 가치를 높이고, 전국 백화점을 통해 이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두 부처와 신세계는 협약을 맺고,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환경부 “기후대응담 사업비 12兆 사실 아냐”

野·환경단체, ‘제2의 4대강’ 반발
환경부 “아직 총사업비 말하기 어려워
제방만으로 하천 홍수 대응 힘들어”

환경부는 기후대응담 총사업비가 십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야당과 환경단체의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후대응담 건설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곧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지난 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담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후대응담 후보지는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이다. 사업에 대해 야당과 환경단체는 ‘제2의 4대강사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31일 “내년 준공예정인 총저수량 180만㎥ 원주천댐의 총사업비가 688억 원”이라며 “이를 기후대응담 14개 총저수량 3만1810만㎥에 대입하면 12조 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우선, 야당과 환경단체가 14개 댐의 총사업비를 12조원으로 추정된 것에 대해 환경부는 “과거 14개 댐 건설을 발표했을 때 총저수량은 4억8000만톤(t)이었으나, 이번에는 3억2000만가량이 다. 그때 추계한 게 3조600억정도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담 후보지(안) 14곳,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봐도 수십조나 12조는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지어진 댐의 경우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아직 댐의 위치, 규모 등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총사업비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가 제방관리만 잘해도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현재 제방은 과거에 내린 비를 가지고 100년 빈도를 예측해 설치된 것이지만, 최근 홍수 패턴은 이걸 넘어섰다”며 “제방만 가지고는 하천의 홍수에 대응하기 힘들다. 수십km 제방을 높이는 것보다 상류에 저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지역도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가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하는 것과 관련해

“미리 알리긴 했는데 보안 등의 이유로 아주 일찍 얘기하지는 못하고 발표 임박해서 전했다”고 해명했다. 14개 후보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이 포함된 강원 양구군은 발표 직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구군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댐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분들께 설명회를 개최해서 반대하는 지자체에 정부의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겠다. 우려하는 부분을 자세히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전 세계 해적 납치·억류 사건 75% 늘어

(전년비)

해수부, 올해 상반기 선원 피해 98명

올해 상반기 해적의 선원 납치 및 억류 등의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4년 상

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납치·억류 등의 선원 피해는 9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6명)보다 75% 늘었다. 선박피랍도 4건으로 지난해 동기(2건) 대비 2배로 늘었다.

해역별로 아시아해역이 41건으로 가

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38건)와 비교해 8% 증가했다. 그간 아시아 해역의 해적 사건은 대부분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해 왔지만 올해 들어 방글라데시 해상에서도 10건이나 발생했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 피해는 상반기 전체(98명)의 절반 이상인 50명(51%)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집중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검역본부,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성 입증

KOLAS 국제공인시험 인정 획득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일부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축산물, 화학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 인정기구(KOLAS) 인정을 획득했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도축장·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KOLAS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산하 조직으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 등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인정 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디스산, 옥소린산, 플루메론 등 퀴놀론계 4종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

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ppm)의 1000배가 넘는 10억분의 1(ppb)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한 유럽 등으로 축산물 수출 시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했다. 1ppm이 1톤에서 1g이라면 1ppb는 1000톤(1리터 우유 100만 개 분량)에서 1g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0.0000001%까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이 돼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고용부,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정책 마련

이정식 장관, 배달종사자 쉼터 방문
애로사항·정부 지원 관련 의견 청취

정부가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표준 계약서 도입, 분쟁해결지원 쉼터 설치 등 현장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움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종사자와 만나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자유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프리랜서 등이 앞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프리랜

서의 경우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용형태로 인해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기 힘든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다양한 종사자의 안전과 휴식·건강을 위해 오늘 간담회 장소와 같은 쉼터 설치와 안전장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것이 원하는 시간·일정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수입의 불안정성, 대출 등 직장인과 다른 대우, 배후·운전 직종의 경우 안전·건강의 위험 등이 있다고 얘기했다.

/김대환 기자

LG화학,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어린이 휠체어' 재탄생

휠체어 바퀴살 보호판 기부나사
COC랩과 어린이 10명에 전달
친환경 소재·맞춤형 디자인 더해



LG화학이 사회가치실현 프로젝트 기업 COC랩(Circle of Change Lab)과 함께 10명의 어린이에게 친환경 소재로 만든 스포크 가드를 전달했다. /LG화학

LG화학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휠체어 바퀴살 보호판을 기부하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한다. LG화학은 사회가치실현 프로젝트 기업 COC랩(Circle of Change Lab)과 함께 10명의 어린이에게 친환경 소재로 만든 스포크 가드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스포츠 가드는 휠체어 바퀴살에 부착하는 둥근 모양의 보호판이다. 바퀴를 굴리면서 손가락이나 링거줄이 끼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LG화학은 기존 단순한 색상 위주였던 스포크 가드에 친환경 소재와 맞춤형 디자인을 더해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재탄생시켰다.

COC랩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이

들에게 스스로 디자인한 스포크 가드를 만들어주는 사회공헌 활동인 '나만의 스포크 가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해 왔다.

아이들은 청년 디자이너와 함께 좋아하는 캐릭터나 동물은 물론, 직접 그

린 그림이나 무늬, 문구까지 다양한 조합으로 자신만의 스포크 가드를 디자인할 수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주변과 소통하면서 휠체어에 대한 불편한 시선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취지다.

LG화학은 스포크 가드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LG화학은 리사이클 플라스틱(PCR-PC, Post-Consumer Recycled polycarbonate) 소재와 스포크 가드 가공까지 모든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총 100개의 렛제로(LETZer) 리사이클 소재 스포크 가드를 만들어 COC랩에 전달했다.

올해 COC랩은 LG화학이 기증한 스포크 가드에 디자인을 얹혀 다른 아이들에게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LG화학 김스티븐 엔지니어링소재 사업부장 전무는 "LG화학의 친환경 소재가 아이들의 다양한 꿈과 개성을 표현하는 데 쓰여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지속가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 개발과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KT, 디지털 인재들과 AICT 세미나

KT가 지난달 31일 KT관교사육에서 'KT 디지털 인재 장학금' 수여자 60여명을 초대해 'AICT 세미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디지털 인재 장학생들은 AI 인재로서 다양한 기술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했다. /KT



키움증권, 임직원 1억보 걸음 기부 성료

키움증권은 임직원 1억보 걸음 기부 캠페인 '키움과함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키움과함께 캠페인은 7월 한 달 동안 전 임직원이 참여, 일상 속 걸음을 통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목표 걸음 수보다 16% 초과한 1억1639만보를 달성했다. /키움증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충북과 함께 새 도약"

충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충북도 명예도지사에 위촉됐다.

1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 7월 31일 연지동 현대그룹 사육을 찾은 김영환 충북도 도지사로부터 명예도지사 위촉패를 받았다.

충북도 명예도지사는 지역 발전에 공헌한 저명인사를 위촉하는 제도로 정책 제언, 자문 등 다양한 도정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현 회장은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지난 2022년 위촉 이후 연임하게 됐다.

현 회장과 충북도의 인연은 지난 2019년 그룹 주력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사와 생산공장의 총주 이전을 결정하며 본격화됐다.

현대엘리베이터 총주캠퍼스는 17만 2759㎡ 부지에 본사를 비롯해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갖춘 승강기 제조사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충북도 명예도지사 위촉패 수여 장면. /현대그룹

실, 기숙사 등 다양한 임직원 복지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이다. 6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연간 약 2만5천대 승강기를 생산, 충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는 총주시청, 총주시지원봉사센터, 한국교통대학교 등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물품 지원

대중기협력재단, LH 등 10곳 동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2억94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1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에 농수산물·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한국도지주택공사

(LH), 제일사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총 1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지원물품은 각 지자체와 협의해 국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즉석식품 꾸러미(영동군 120상자, 논산시 1,000상자, 완주군 500상자, 영양군 입암면 50상자), 생필품 꾸러미(서천군 700상자, 완주군 100상자), 이불(영동군 44채), 농촌사랑상품권(완주군 448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수협은행, 강원도 어촌경제 활성화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와 함께 강원도 지역의 어촌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수협은행은 '사랑해(海) 온정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획량이 줄면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협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삼척원덕수협을 방문해 조항 내 저소득 어업인 100가구에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수협은행

현대차 정몽구 재단, 아세안 차세대 리더 육성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차세대 아세안 리더 육성에 나선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7월 3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재단과 '한-아세안 차세대 리더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아세안재단은 지난 1997년 아세안 공동체의 화합과 번영을 목표로 세워진 아세안 사무국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양 재단은 차세대 리더 육성 사업 'CMK 아세안 스텝' 장학생의 아세안 국제기관 인턴십 기회 확대, 아세안 현지 조사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CMK 아세안 스텝은 정몽구재단이 고려대 아세안센터와 협력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아세안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학습하고 현지



(왼쪽부터) 현대차 정몽구 재단 조현진 사업팀장, ASEAN Foundation Ilan Asqolani Senior Programme Manager, 고려대 아세안센터 신재혁 센터장이 '한-아세안 차세대 리더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한다.

정몽구재단은 아울러 오는 11월 국내의 아세안 전문가 및 고위 정책결정권자를 초청해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CMK 아세안 포럼을 열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카카오헬스케어, 청소매니저 건강증진 협력

카카오헬스케어는 홈클리닝 서비스 '청소연구소'를 운영하는 생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매니저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매니저의 건강 관리를 위해 ▲카카오헬스케어의 모바일 혈당관리 솔루션 '파스타' 정기 교육 ▲교육 참여자에 한해 연속혈당측정기 무상 보급 등을 공동 추진한다.

혈당 관련 제품의 공동 판매 및 프로모션을 진행해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청소매니저를 위한 혈



카카오헬스케어-생활연구소 MOU.

당관리 프로그램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판교 카카오헬스케어 본사에 청소매니저 약 150명을 초청해 연속혈당측정기와 파스타를 활용한 실시간 혈당 체크 및 건강관리 방법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종근당홀딩스,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

종근당홀딩스는 7월 23~31일 여름철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2024년 하절기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종근당 총정로 본사를 시작으로 ▲천안공장 ▲효종연구소 ▲종근당바이오 안산공장 ▲경보제약 아산공장 ▲종근당건강 당진공장 등 6

개 사업장에서 진행됐다. 종근당홀딩스는 올해 두 번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 219명이 기증한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한다.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 1명당 1만원의 매칭기금을 조성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소아암센터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데 후원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be@

국순당

'주향로 오픈데이' 행사 진행

국순당이 본사가 위치한 강원도 횡성의 대표적 지역 여름 축제인 댕내 고랭지 토마토축제 기간을 맞아 강원도 횡성 양조장에서 '주향로 오픈데이(OPEN DAY)' 행사 등 우리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순당 횡성양조장 '주향로'는 '술향기 가득한 길'이라는 뜻의 우리술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정부로부터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된 명소이다. '주향로 OPEN DAY'는 사전 예약 없이 국순당의 전통주 생산현장 견학 등을 바로 할 수 있다. 10~11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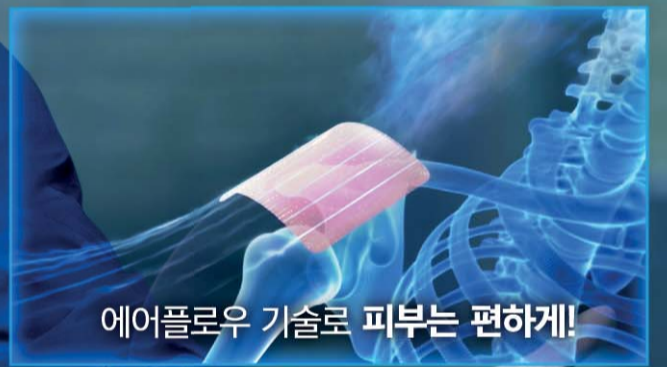
▲박창호(세정21 전 사장)씨 별세, 박순호(세정그룹 회장)씨 동생상=7월31일, 광혜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일 오전 10시,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506-1022
▲송기원(소설가)씨 별세=7월 31일, 대전 유성구 선병원 장례식장 VIP 3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장지 세종은하수공원 ☎ 042-825-9494.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JEIL 제일헬스사이언스

통증엔 케펜텍으로 Tech 하세요!



케펜텍 Cool

케펜텍 HOT

케펜텍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 참조 및 본사 마케팅부(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헬스사이언스(주) Tel. 수신자부담 080-549-0002)로 문의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 2021-1584-004200

의평원 의대 인증평가 착수에 교육부·의총협 “학교 정상화 먼저”

증원 의과대학 대상 평가기준 강화 의대들, 기본계획 접수 11월 말까지 의총협회장 “학생 복귀 후 평가해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증원한 의과대학에 대한 인증 평가에 착수하자, 한 대학 총장이 ‘휴학 의대생’이 복귀해야 평가에 응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평가 거부’ 분위기가 확산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의평원에 따르면, 의평원은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30개 의대에 대해 51개 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방침이다. 기존 지침은 15개의 기준을 사용했지만, 2025학년도부터 각 의대에서 최대 4배가량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는 게 의평원 설명이다. 의평원은 교육부가 지정한 의학 교육 평가·인증 전문가로,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긴 의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 /뉴스시스

대를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이 결정된 올해를 시작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상 평가는 2~6년 주기로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번 평가를 위해 ▲학생 수 증원 규모 ▲교원 수 변화 계획 ▲시설 확보 현황 및 변화 계획 ▲교육병원 확충 계획 ▲재정 확보 계획 등을 담아 ‘종합 기본계획’을 11월30일

까지 접수해야 한다. 당초 2025년 1월 말까지였지만, 의평원은 이 기한도 앞당겼다.

이에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평원이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해 평가를 마치고 ‘인증’ 판정을 내놓더라도, 막상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미에서다.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회)를 겸하는 흥원회 경북대 총장은 의평원을 향해 “학생도 없는 대학에서 (인증) 평가는 의미가 없다”라며 “학생들이 돌아오고 학교 수업이 정상화돼야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대학 입장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 평가계획안이 대학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안과 대학의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인증한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인증 아파트에 어린이 안전시설 지원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곳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 항목을 평가해 인증한다. 3대 분야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를 비롯한 안전시설이 갖춰졌는지를 점검하는

‘건축계획’ ▲놀이터,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육아지원 시설이 있는지 등을 보는 ‘육아시설’ ▲입주민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소통창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운영관리’로 구성된다.

인증 대상은 3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기존 민간아파트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설계도면 검토,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아이사랑홈 인증현판이 부착된다. 또 비싱벨·엘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포항시, 英 ‘EKC 2024’서 첨단과학 알려

단독 홍보관 운영, 과학인프라 홍보

경북 포항시는 지난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영국 코번트리 워릭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EKC 2024’에서 단독 홍보관을 운영하며, 글로벌 첨단과학도시 포항을 적극홍보하고 있다.

유럽 9개국의 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개최한 EKC(재유럽 한인 과학기술 학술대회)는 한국과 유럽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16년간 유럽 국가를 순회하며 진행돼 왔다.

이번 ‘EKC 2024’는 포스텍, 현대, LG에너지솔루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정부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내일을 변화시키기 위한 영향력, 혁신, 연결성’을 주제로 과학기술 토론과 비즈니스 세션, 산업 포럼 및



영국 코번트리 워릭대학교에서 개최된 EKC 2024 개막식. /포항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포항시는 단독 홍보관을 운영, 지역에 집적된 우수 연구시설 및 과학인프라를 학술대회 참가자 및 과학 기술자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특히 지난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올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룬 만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에 노력했다. /포항(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일괄 재정비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내놔 200여곳 일괄 재정비 대상지로

서울시가 그동안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를 직접 일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 4월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 체계 단순화·통합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도시계획 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구역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추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총 787곳 가운데 현재 재정비가 진행 중인 곳 등을 제외하면 약 200여곳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별 특성(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용)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8월 2일 (금)
음력 : 6월 28일

수도권 날씨
26~3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지락 인 베이징’ 베이징서 서울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31일(현지 시각) 베이징 우커송 안다백화점 1층 중앙로비에서 서울 홍보 프로모션 ‘SEOUL之樂 in BEIJING(서울지락 인 베이징)’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프로모션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다양한 특징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시는 ▲한강 야외도서관 ▲무동력 트레드밀 걷기 챌린지 ▲K-푸드 등을 소개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세계 최대 기후변화 회의 유치 총력

2028년 개최될 ‘COP33’ 유치 의사

고양시는 2028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양시는 대규모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인프라와 탄소중립 정책을 내세워, 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COP33을 유치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자리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탄소중립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COP33을 유치하고, 더 나아

가 고양시가 개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 국제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처음으로 COP33 유치 의사를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 관련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글로벌 공식 국제회의로, 매년 개최된다.

고양시는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왔으며,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이동환 시장은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한국집행위원 자격으로 공식 초청받아 참석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경찰 “시청역 사고 당시 가해차량 최고 시속 107km” /사진 뉴스시스
▲‘티메프’ 사태 여파…경찰, 해피머니 발행사 수사 착수

▲코로나 환자 한 달새 5배 증가…백일해·수족구병 등 ‘비상’
▲서울회생법원, ‘경영난’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음성군 건축자재 제조공장 불, 7명 대피…2500만원 피해 /사진 뉴스시스
▲외교·복지 감사관 등 부처 10개 직위에 ‘공직 내·외부 인재’ 채용

하반기 와인 키워드... 화이트·고급화·스파클링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왼쪽부터)칠레 스파클링 와인인 리트모 엑스트라 브뤼, 미국 베링저 나파밸리 샤르도네, 뉴질랜드 크래기 레인지 테 무나 피노누아, 아르헨티나 트라피체 그란 메달라 말베.

와인 소비가 많이 줄었다는데 어떤 와인은 품질 대란이란 다. 와인 시장이 작년부터 꺾였다고 해도 물량으로 보면 정점을 찍었던 당시보다 줄었을 뿐 절대적인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많다. 팔리는 와인은 또 잘 팔린단 얘기가.

이젠 와인 수입사들의 실력이 가감없이 드러날 차례다. 누가 인사이트를 발휘해 와인 소비자들의 입맛을 먼저 사로잡을지 말이다. 수입사들이 매달 와인 수입 통계가 집계되길 기다리며 작은 변화에도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하반기 와인 시장을 지배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화이트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의 부상이다. 레드와인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수입주류통계데이터에 따르면 약 65%까지 달했던 레드와인의 비중은 지난 2021년 63%, 2022년 62%에서 2023년 55%로 하락했다. 스파

클링 와인의 비중이 2021년 14%에서 작년 21%까지 빠르게 상승했고, 화이트 와인은 18%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화이트와인이 선방했다. 상반기 기준 레드와인의 수입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나 줄었지만 화이트 와인은 7% 감소에 그쳤다. 와인 전체로 보면 상반기 수입규모 감소폭은 18%다. 레드와인이 감소를 주도하고, 화이트 와인이 방어해준 모양새다.

정원남 금양인터내셔널 과장은 "상반기 동안 화이트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의 소비가 늘면서 더 가볍고 상쾌한 와인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점점 더 다양한 음식이나 상황과 어울리는 와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입맛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와인의 성장세도 화이트와인의 부상 속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뉴질랜드는 2017년까지만 해도 국내 수입와인 국가 순위 톱10위에도 들어오지 못했다. 작년 7위까지 올라오더니 올해 들어서는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호주를 앞질렀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뉴질랜드 와인만 유일하게 수입이 늘었다. 뉴질랜드 소비봉 블랑이라고 하면 '믿고 마신다'고 할 만큼 대표주자가 있는 데다 실망을 준 적 없는 품질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스파클링 와인은 일상속으로 들어왔다. 특별한 날 큰 맘 먹어야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일리 와인으로도 가능한 인식이.

금양인터내셔널이 올해 데일리 스파클링 와인으로 내놓은 칠레 '리트모 브뤼'는 적지 않은 물량을 풀었는데도 모두 품절됐다.

편의점에서도 스파클링 와인전을 기획하는가 하면 이마트는 초저가 스파클링 와인을 선보이며 대중화에 나섰다. '고급화'도 하반기 와인 시장을 이끌

키워드 중 하나다. 생산국가나 지역, 와인 종류를 불문하고 전반에 걸친 변화다.

실제 올 상반기 수입된 와인의 병당 평균단가는 미화 6.8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했다. 와인이란 게 그렇다. 마시기 시작하면 더 좋은 와인을 찾게 되는 법이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트렌드에 민감하고, 품질에 예민한 우리나라는 속도가 더 빨랐다.

업계에서는 미국와인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컬트와인을 비롯해 고품질 와인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 과장은 "한 번 와인을 마실 때 제대로 된, 비싼 와인을 마시겠다는 소비 성향으로 볼 수 있다"며 "와인 시장의 추세 변화는 바뀐 소비자 취향을 반영할 뿐 아니라 글로벌 와인 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기도 해 와인 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는 동시에 성장과 기회 영역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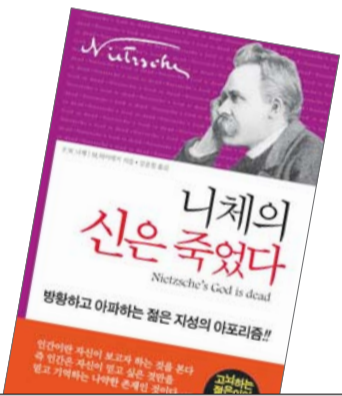
숲 속에서 성자를 만난 차라투스트라는 그에게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성자는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고 답한다. 그와 헤어진 차라투스트라는 숲 속의 성자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받는다.

니체는 왜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는가.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동굴에서 내려온 차라투스트라가 '신을 살해한 자'를 맞닥뜨리는 장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책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게 생긴 그자'라고 묘사된 살인자는 차라투스트라에게 "그를 죽인 자, 즉 신을 살해한 자의 기분이 어떠한지 그대는 알고 있으리라. 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나의 곁으로 오라.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 아니다"고 이야기한다.

이어 살인자는 모순적인 말을 내뱉는다. 그는 차라투스트라에게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되, 저를 바라보지는 말라고 한다. 그는 "내가 그대 말고 다른 누구에게로 가려고 했겠는가?"라며 "이곳에 머물러 내 곁에 앉아라. 그러나 나를 응시하지는 말라. 그리하여 나의 추악함을 공경하라!"고 명령한다.

신을 죽인 연유로 살인자는 심한 박해를 받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저처럼 사람들로 부터 심한 박해를 받는 자들이 이룬 것이기에, 그는 떳떳하다. 그런 그가 못 견디게 힘들어하는 건 '박해의 방식'이다. 그는 "그들은 증오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것도 아니고, 포수로 하여금 나를 뒤쫓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 박해라면 나는 얼마든지 비웃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다"며 "그러



니체의 신은 죽었다 프리드리히 니체, 마르틴 하이데거 지음/스타북스

나 내가 도망쳐 나온 것은 그들의 '동정'으로부터이다"고 고백한다.

책에서 니체는 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가 두 눈으로 인간의 밑바탕과 속을, 감춰진 모든 치욕과 추악함을 봤기 때문이다. 신은 항상 인간을 보고 있었고, 인간은 이런 목격자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고로 모든 것을, 인간까지도 꺾어버린 신은 죽을 운명에 처한다. 자신의 밑바닥을 본 목격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던 인간, 즉 살인자는 결국 국신을 죽이기에 이른다.

니체는 악마의 입을 빌려 "신에게도 지옥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이다. 신은 죽었다. 인간에 대한 동정 때문에 죽었다. 그대들이여, 동정을 경계하라!"며 "이 말 또한 명심하는 것이 좋으리라. 모든 위대한 사랑은 동정의 단계를 초월해 있다. 그것은 대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창조하기까지 한다"고 말한다. 320쪽, 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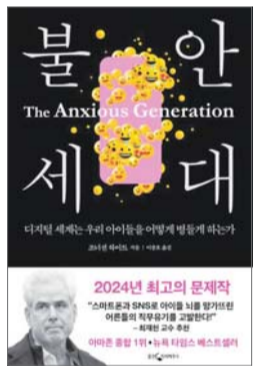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hik1@

불안 세대

조너선 하이트 지음/이충호 옮김/웅진지식하우스

하루 7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5분에 1개씩 푸시 알림을 받는 아이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10대 우울증 2.5배 증가, 만성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 139% 급증, 여성 청소년 자살률 167% 상승..."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자 세계 각국에서 10대의 스마트폰과 SNS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

다. 미국 13개 주에서는 아동 SNS 제한 법률이 통과됐고, 프랑스는 13세 미만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호주 역시 16세 미만의 SNS 가입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저자는 "어른들이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을 과잉보호하고, 가상 세계에서 지나치게 과소보호하며 10대의 정신적 붕괴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528쪽, 2만4800원.



도덕감정의 사회학

김광배 지음/한울아카데미

'도덕과 윤리' 교육이 권위주의 정권에 충성하는 국민을 양산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덕감정'은 신물 나는 개념처럼 여겨진다. 즐겁고 올바르게, 보람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날 이런 질문은 시대의 불안 증후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민주주의 퇴행과 불평등 심화로 인한 실존적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한 사유와 판단, 성찰과 실천을 요구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도덕감정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도덕감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하고 나쁜지를 사유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감정이다. 책은 혐오와 반지성주의, 분노와 무기력을 이겨낼 해법으로 사회적 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에너지, 도덕감정을 제시한다. 432쪽, 4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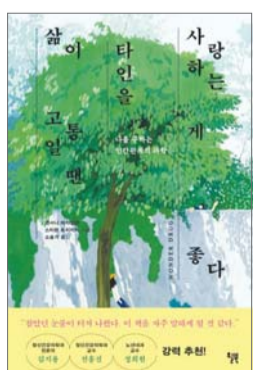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

앤서니 마자렐라, 스티븐 트리자와 지음/소슬기 옮김/윌북(willbook)

공감 결핍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외로움이라는 고질병을 앓는다.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로 번아웃된 사람들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기계발에 몰두한다. 마음의 문을 닫고 심연으로 침잠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립은 더 큰 외로움을 낳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책은 "우리의 몸과 뇌는 타인과 연결되고, 접촉하고, 협력

할 때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하며 과도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시달리는 사회와 홀로 자신을 지켜내려 애쓰는 현대인을 구할 특효약으로 '공감'을 처방한다. 오로지 내게만 집중하는 삶의 방식을 멈추고 더 많이 공감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저자들은 조언한다. 296쪽, 1만8800원.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안보리 참석' 이란, 美책임론... "하니에 암살 승인했다"
▲ "이란, 하마스사령관 살해의 보복은 '잘 관리된 방식'으로 할 것" /사진 뉴시스

▲ 트럼프, 총격사건 이후 첫 펜실베이니아 유세... 해리스 향해 "해고"
▲ 친러 우크라이나 정치인 "美, 젤렌스키 교체하려 해" 주장



▲ 中·인도, 국경문제 실무회의... "해결 방안 조속히 도출"
▲ 日, 8월 중앙아 5국과 정상회의로 협력 강화... 중러 견제 /사진 뉴시스



건강·환경 챙기는
식물성·단백질 음료
가치소비 '꿀꺽'
너



Life

LG화학
친환경 소재로
어린이 휠체어를
L2



“초밀착 표현에 정착했어요” 유목민들의 ‘쿠션 종결템’

‘고유한 가치와 다채로운 아름다움 그리고 구성원 각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결합하고 해체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도시, 서울.’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헤라’는 서울이 전 세계적인 문화 코드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표현했다.
컨템포러리 서울 뷰티 브랜드 ‘헤라’는 지난 1995년부터 서울의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아름다움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헤라는 서울만의 아름다움이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다움을 발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헤라가 구축한 ‘서울 뷰티’에는 아름다움은 나 자신의 본질에서 비롯된다는 브랜드 가치관이 담겼다. 특히 헤라의 쿠션은 헤라가 추구하는 서울 뷰티를 구현한 대표적인 화장품으로, 자연스럽게 편안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연출된 피부를 완성해 주는 제품이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헤라 ‘블랙쿠션’

아모레퍼시픽, 2008년 쿠션 카테고리 열어
물광피부 유행하며 ‘미스트 쿠션’ 대중성 ↑
2017년, ‘블랙쿠션’ 출시... 7년째 쿠션 ‘1위’

화장품 시장에서 쿠션이라는 존재는 지난 2008년 아모레퍼시픽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다. 쿠션은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섀도 등 기초 메이크업 화장품을 특수 스펀지 재질에 복합적으로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포장한 형태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시는 일상 속에서 좀 더 쉽고 빠른 메이크업을 원하는 고객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던 시절이라고 설명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시대적 흐름을 적극 반영했고 바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소비자들은 수많은 화장품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쿠션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화장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 곧 쿠션은 자유로운 일상을 위한 완벽한 혁신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2010년대에 매우 촉촉하고 윤기가 흐르는 물광 피부가 유행하면서 쿠션은 메이크업 시장에 안착했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아이오페 에어쿠션, 헤라 UV 미스트 쿠션,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CC쿠션, 라네즈 BB 쿠션 등 아모레퍼시픽의 여러 브랜드들이 출시한 쿠션 제품은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국내외에서 총 1400만 개가 넘게 팔렸다.

헤라 최초의 쿠션인 ‘UV 미스트 쿠션’도 마치 미스트를 뿌린 듯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표현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제품이었다. 쿠션이 가진 편리성과 완



아모레퍼시픽의 여러 브랜드를 통해 출시된 쿠션 제품들.



지난 2023년 8월 일본 도쿄 시부야의 대형 쇼핑몰 ‘스크램블 스퀘어’에서 헤라가 브랜드 팝업 매장을 운영했다. /아모레퍼시픽

지속력·밀착력 강화해 자연스러운 피부표현 ‘제니쿠션’으로 해외서 인기, 글로벌 행보 속도 진화 계속해 ‘최초&최고 쿠션’ 새 역사 쓸 것

성도 높은 물광 메이크업이 맞물려 헤라 ‘UV 미스트 쿠션’은 화장품 시장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이는 헤라가 쿠션으로 폭넓은 대중성을 얻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이후 2017년 헤라는 드디어 ‘블랙쿠션’을 내놓는다. 출시부터 지금까지 7년 연속 쿠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블랙쿠션은 완벽한 메이크업을 선보여 쿠션에 대한 고객 인식을 확실하게 변화시켰다.

기존 쿠션은 간편함이 장점이지만 메이크업 지속력은 파운데이션 제품에 비해 떨어진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블랙쿠션은 지속력과 밀착력에 집중해 수정 화장 용도로만 사용되던 기존 쿠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화장막을 고정하는 처방과 다양한 색상군을 갖춰 베이스 메이크업으로서의 높은 완성도를 자랑했다.

2021년에는 더욱 진화한 헤라 ‘NEW 블랙 쿠션’이 나왔다. 기존 블랙 쿠션보다 제형의 두께감은 낮추고 본질적인 기능인 지속력과 밀착력은 강화돼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실현하게 됐다.

또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 초개인화 사회가 도래하고 메이크업 유행이 획일화된 완벽함보다는 개인의 개성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발맞췄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헤라 블랙쿠션은 블랙핑크 ‘제니 쿠션’으로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얻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를 선도할 날개를 달았다. 지난 2023년 일본에 공식 진출해 서울 뷰티의 철학과 제품력을 전달하는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헤라 블랙쿠션은 올해 2월에는 메이크업 단일 제품으로는 이례적으로 누적 판매 1000만 개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어 올해 4월 헤라는 블랙 쿠션을 재단해 선보였다. 제품명도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변경해 한 단계 진화한 블랙 쿠션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다만 3세대 제품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은 디자인은, 메이크업의 본질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헤라만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번 재단장 과정에서 헤라는 지금까지 축적한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차례의 연구와 고객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은 기존에 호평받았던 초밀착 기능에 덧탑함 없이 매끄러운 피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력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헤라는 아모레퍼시픽 독자 기술인 ‘피그먼트 미립화 공정’을 통해 기존보다 곱고 세밀해진 미세 파우더 입자에, 새로 고안한 ‘스트레처블 레이어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보다 훨씬 유연한 제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제형이 피부에 초밀착되면서 얇고 가볍게 발리고, 주름에 끼임이나 들뜸 없이 메이크업 직후의 정교한 피부가 오랜 시간 편안하게 유지되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은 다양한 메이크업 유형과 피부 톤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총 9가지 색상군으로 구성됐고 맑고 순도 높은 색소가 본연의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화사한 피부로 만들어 준다.

헤라는 친환경적인 요소도 설계해 분리수거의 용이성을 위해 자사 최초로 내용기에 금속핀 대신 플라스틱 핀을 활용하고, 외용기 하단부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50% 적용했다.

헤라는 블랙쿠션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다.

제품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블랙쿠션이 가진 정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활발한 협업도 추진한다. 헤라가 협업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 또한 ‘서울’에 뿌리를 둔 확고한 취향으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초&최고의 쿠션 역사를 써내려가는 헤라는 ‘서울 뷰티’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중심 축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교체로 ‘남사브르 3연패 기어’ 도경동 “내가 어떤 농인지 보여 기뻐” /사진 뉴시스
▲토트넘 선수들, 입모아 양민혁 칭찬 “같이 뛴 날 기대해”

▲김하성, 안타 없이 2볼넷 1득점...샌디에이고 연이틀 다저스 격파
▲佛경찰, 이스라엘 축구 경기 중 ‘반유대주의 행위’ 용의자들 추적



▲프랑스 농구, 일본과 연장 접전 끝에 94-90 진땀승 /사진 뉴시스
▲악플 시달린 파비앙, 한국 양궁 금메달에 “휴 살았다”